

우리 아이 건강 위한 첫걸음, 사는 것보다 중요한 육아용품 관리·보관법

따스한 봄볕에 들뜬 기분도 잠시, 황사와 미세먼지의 습격에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일이 엄마들의 우선순위가 돼버렸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의 경우 가장 많이 접하는 육아용품으로 세균 감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아이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육아용품 보관과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말자.

글_송새봄 기자<매거진 키즈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육아용품' 기초상식 5


- ① 모든 육아용품은 보관 전, 반드시 세탁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 진드기 등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변색이나 악취 등 손상이 생긴다.
- ② 육아용품은 구매한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 등 완제품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포장 상자에 제품 사진과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 찾기도 쉽고 중고로 거래할 경우에도 유용하다.
- ③ 배냇저고리, 신생아 의류 등 천을 사용한 육아용품에는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의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기 쉬우므로 삶아서 깨끗하게 세탁한다.
- ④ 육아용품을 보관하는 보관함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2주마다 안을 비워 먼지와 세균을 닦아주면 좋다.
- ⑤ 육아용품은 열과 직사광선에 약하다. 안 쓰는 육아용품은 상자에 넣어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육아용품’의 거짓 혹은 진실


장난감, 뜨거운 물로 소독해야 한다?

 아이 장난감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과 고무의 경우, 열탕 소독을 하게 되면 특성상 모양이 변하거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위험까지 있어 열탕 소독은 하지 않는다. 장난감을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 한번 담갔다가 세척하고 흠이 패인 곳은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내자.


아기띠는 무조건 손빨래를 해야 한다?

 패브릭과 쿠션 등 변형의 우려가 있는 아기띠는 손세탁으로 변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푼 뒤 손으로 조물조물 빨아 그늘지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자연건조를 한 뒤 보관한다. 다만, 배넛 저고리, 신생아 의류 등은 삶아서 깨끗하게 세탁한 뒤 보관할 것.

육아용품, 보관 시 비닐에 넣어 포장한다?

 비닐에 넣어 포장하게 되면 통풍이 잘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육아용품은 주로 플라스틱과 패브릭, 철재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하다. 습기가 생기면 곰팡이와 녹 등의 해를 받기 쉬우므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육아용품 소독을 위해서 햇볕에 말려야 한다?

 매일 빨 수 없는 카시트와 유모차 등은 패브릭 케어 제품을 뿌려 땀 냄새를 제거하고 일광소독 시키자. 햇볕의 자외선이 섬유에 세균을 없애주고 습기를 말려주는 최고의 천연 소독방법으로 별이 잘 드는 오후 12시부터 4시 사이에 2시간 이상하고 최소 2주에 한 번씩 한다.

TIP

다양한 육아용품, 다양한 관리법

+ 유모차 시트와 바구니, 차량 등 패브릭 제품은 중성세제를 푼 30℃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말린다. 본체와 손잡이, 바퀴 등은 제균 티슈로 가볍게 닦고 찌든 때는 세정제를 이용한다.

+ 카시트 카시트에 얼룩이 묻었다면 중성세제를 풀어 스펀지에 묻힌 후 문질러 주고 카시트 프레임은 소독 성분이 있는 물티슈나 마른 수건에 향균 스프레이를 뿌려 닦는다. 차 안은 특히 세균과 진드기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세척 후 1~2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 인형 천 인형의 경우 세탁기를 사용하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세제를 풀어낸 물에 담가 손빨래를 하거나 굵은 소금을 담은 봉지에 인형을 넣고 흔들어 먼지와 잔여물을 털어주면 된다.

+ 그림책 책에 먼지가 쌓이거나 누렇게 변해 뒤틀리는 것을 막으려면 문이 달린 책꽂이에 넣거나 신문지로 책 뒷부분을 덮으면 된다. 책을 청소할 때는 마른 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모서리 부분도 닦아준 뒤 책을 펼쳐 햇볕에 말리면 된다.

+ 모빌 전동 기능이 있는 모빌은 물 세척 대신 소독 티슈나 제균 티슈 등으로 제품 표면을 닦아내고, 틈새에 낀 먼지는 제균 스프레이를 묻힌 면봉으로 살살 닦아내면 된다.

